

## 대학생의 IMF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식생활대처행동

서정희\* · 홍순명\*\*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1999년 7월 30일 접수)

### Undergraduate Students'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with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Seo, Jeonghee and Hong, Soonmyung\*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Food & Nutrition Univ. of Ulsan\*\**  
(Received July 30, 1999)

#### Abstract

This paper was developed to determine the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pattern in meal management with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The data was collected from 544 university students in Ulsan areas. The coping behavior consisted of 26 item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4 factors; (factors were named as related to): 'decrease of intakes factor', ; 'change to the cheaper choices factor' ,; 'increase of meals at home factor' and 'emphasizes on quantity sacrificing the quality factor' .

Socio-economic variables affected differently the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and 4 sub factors. The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the status of housing,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gender affected the coping behavior in meal management. The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and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affected the decrease of intakes factor and the change to the cheaper choices factor. The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and gender affected the increase of meals at home factor and the emphases on quantity sacrificing the quality factor.

#### I.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환경과 계속되는 상호작용 이므로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환경에 자극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자극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보다 이러한 자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처행동은 자극 원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과 가계의 노력<sup>1)</sup>이다. 효과적인 대처행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불안 타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 자체보다 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2)</sup>.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모가 경제적 만족감과 소득적정도를 더 높

게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sup>3)</sup>가 있다. Berman과 Turk<sup>4)</sup>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편모들이 자원활용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sup>3, 5, 6, 7)</sup> 대처행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인가에 따라 구성 내용도 달라진다. 그리고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동일한 조사 대상이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대처행동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up>6, 7)</sup>.

IMF 경제위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일 뿐만 아니라 거품경제로 인하여 국

민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우리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소비행태가 절약형으로 바뀌었는데, 외식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없앴다는 가계가 86.2%, 배달해 먹는 우유나 야구르트를 그만두었다는 가계도 35.1%를 차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p>8)</sup>. 그러므로 대학생들도 IMF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행동의 하나로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식생활분야에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울산광역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생활분야에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의 종류와 수준을 알아보고, 식생활대처행동의 경험적 차원을 밝히고,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전반적인 식생활대처행동 및 식생활대처행동의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식생활문화를 파악하고, 대처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실천적으로는 가계복지정책과 식량정책 및 식생활 관련사업의 마케팅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이 논문은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성별, 학년, 전공계열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의표집을 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3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544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 2. 조사 내용 및 방법

이 논문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주요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azarus와 Folkman<sup>9)</sup>은 대처행동을 문제해결적 대처방안과 정서적 대처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은 개인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려는 노력이고, 정서적 대처방안은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정서적 대처방안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왜곡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서적 대처방안은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이 불가능하거나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식생활대처행동을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자원인 응집력, 적응력, 조직력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며, 위험한 사건과 이에 따른 고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 나아가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므로 식생활대처행동은 대학생이 IMF라는 경제위기라는 자극에 반응하여 가족시스템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행동으로써 식생활영역에서 자원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학생의 인지적·행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식생활대처행동은 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생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심층면접한 결과를 내용분석하여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을 부여하는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식생활대처행동 점수는 26점부터 10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통계처리

대학생들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식생활대처행동을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식생활대처행동의 경험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은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하여 추출하였으며, 보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요인들로 묶기 위하여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전반적인 식생활대처행동과 식생활대처행동의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을 할 때 성별은 남자를 1로 하는 가변수로, 주거상태는 자취, 하숙, 기숙사 등을 1로 하는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3.06%로 남학생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은 25세 이상이 34.77%로 가장 많았고 23-24세가 24.55%, 22세가 21.41%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6.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로 31.32%를 차지하였고 기독교는 22.12%를 차지하였다.

주거상태는 자택이 69.41%, 기타가 30.59%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1.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이하로 30.08%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46.56%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32.61%, 국졸이하도 20.83%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9.37%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은 20.63%, 생산직은 21.05%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취업을 한 경우가 36.54%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3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0만원 미만으로 25.93%, 120-150만원이 19.45%로 가장 적었다.

한달 용돈의 크기는 10-20만원이 48.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30만원으로 26.77%를 차지하였다. 소득유입시기의 불규칙성을 보면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37.90%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가 33.33%,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28.77%를 차지함으로써 2/3 정도는 소득유입시기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가 65.35%로 가장 많았고, '항상 틀리다'는 21.39%나 되었다.

#### 2. 식생활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하는 식생활대처행동의 평균을 보면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가 3.37로 가장 높았고, '점심을 도시락을 이용한다'가 1.41로 가장 낮았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 '값싼 음식점을 이용한다', '커피 등 음료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다', '음식은 외국산 보다 국내산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는다', '외식시 가격을 먼저 생각한다', '외식의 횟수가 줄었다', '외국 브랜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한다', 등은 평균이 3점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높은 편에 속한다. 나머지 식생활대처행동들은 평균이 2점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생활영역에서 지출을 감소하는 대처행동을 하였으며, 대처행동의 종류에 따라 실행하는 수준은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 단	빈도*	%
성 별	남	238	46.94
	여	269	53.06
연 령	21세 이하	98	19.25
	22세	109	21.41
	23~24세	125	24.56
	25세 이상	177	34.77
종 교	무 교	232	46.57
	불 교	162	31.32
	기독교	111	22.12
주거상태	자 택	354	69.41
	기 타	156	30.59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51	30.08
	고졸	258	51.39
	대졸이상	93	18.53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106	20.83
	중졸	166	32.61
	고졸이상	237	46.56
직업	전문 관리직	98	20.63
	판매 서비스직	90	18.95
	생산직	100	21.05
	사무직	187	39.37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186	36.54
	비취업	323	63.46
월 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	132	25.93
	120~150만원 미만	99	19.45
	150~200만원 미만	110	21.61
	200만원 이상	168	33.01
한 달 용돈의 크기	10만원 미만	55	10.83
	10~20만원 미만	246	48.43
	20~30만원 미만	136	26.77
	30만원 이상	71	13.98
소득유입 시기의 불규칙성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191	37.90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145	28.77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	168	33.33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매달 소득이 같다	67	13.27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330	65.35
	항상 틀리다	108	21.39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이가 있음

〈표 2〉 식생활대처행동의 경향

	평균	표준편차
1.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3.22	0.66
2.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	3.37	0.68
3. 음식의 질보다 양을 생각한다.	2.40	0.83
4. 값싼 음식점을 이용한다.	3.13	0.63
5. 커피등 음료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다.	3.13	0.73
6. 집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를 만난다.	2.48	0.75
7. 음식은 외국산보다 국내산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는다.	3.17	0.60
8. 반찬의 가지수를 줄였다.	2.50	0.86
9. 외식시 가격을 먼저 생각한다.	3.11	0.77
10. 외식의 횟수가 줄었다.	3.04	0.83
11. 점심은 도시락을 이용한다.	1.41	0.83
12. 점심은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2.94	0.92
13. 간식의 횟수와 양이 줄었다.	2.74	0.89
14. 외식시 먹는 양을 줄였다.	2.25	0.97
15. 친구들을 만날 때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피한다.	2.76	1.02
16. 외국 브랜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한다.	3.20	0.83
17. 음식값은 각자 돈을 지불한다.	2.93	0.76
18.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	2.90	0.99
19. 과일의 섭취가 줄었다.	2.48	0.97
20. 간식을 줄였다.	2.64	0.91
21.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줄였다.	2.65	0.95
22. 과자류의 섭취가 줄었다.	2.76	0.97
23. 식사는 집에서 먹고 나온다.	2.76	0.88
24. 저녁은 가급적 집에서 먹는다.	2.66	0.95
25. 식비를 줄였다.	2.80	0.91
26.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시 먹도록 한다.	2.64	0.95

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계는 경제적 불안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Voydanoff, Donnelly, Fine 등<sup>10, 11, 12, 13)</sup>, 황덕순<sup>6)</sup>, 예상하지 못한 가계의 재정요구가 발생했을 때 비상금을 사용하거나, 저축을 찾아 쓰거나, 새 옷을 사지 않거나 교양활동을 하지 않는 등 긴축제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Varcoe<sup>14)</sup>, 재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전략 중에서 절약구매를 가장 많이 한다는 최자령·임정빈의 연구<sup>15)</sup>, 농촌가계는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처행동을 한다는 손상희<sup>7)</sup>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3. 식생활대처행동의 차원

〈표 3〉에는 이 논문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조사한 식생활대처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42.6%를 설명해 준다.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간식을 줄였다', '과자류의 섭취가 줄었다', '간식의 횟수와 양이 줄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줄였다', '과일의 섭취가 줄었다', '식비를 줄였다', '외식시 먹는 양을 줄였다', '반찬의 가지수를 줄였다',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량 감소」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섭취량 감소 요인은 아이젠 값이 6.299이고, 식생활대처행동 전체 분산의 24. 2%를 설명해줌으로써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커피등의 음료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다', '값싼 음식점을 이용한다', '외식시 가격을 먼저 생각한다', '점심은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외식의 횟수가 줄었다',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 '친구들을 만날 때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피한다', '음식값은 각자 돈을 지불한다', '외국 브랜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한다'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

〈표 3〉 식생활대처행동의 요인분석

내 용	섭취량 감소	값싼것으로 대체	가정에서 식사	절약강조	communality
간식을 줄였다.	.824	.170	.035	.083	.717
과자류의 섭취가 줄었다.	.732	.050	.179	-.013	.571
간식의 횟수와 양이 줄었다.	.726	.226	.081	.069	.589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줄였다.	.582	.025	.193	-.264	.447
과일의 섭취가 줄었다.	.543	.321	-.017	.315	.498
식비를 줄였다.	.509	.235	.364	-.071	.452
외식시 먹는 양을 줄였다.	.493	.245	.109	-.176	.346
반찬의 가지수를 줄였다.	.408	.367	.100	.158	.336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	.369	.103	.282	-.341	.343
커피등의 음료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다.	-.003	.652	.108	-.001	.437
값싼 음식점에 이용한다.	.095	.584	.197	.282	.468
외식시 가격을 먼저 생각한다.	.255	.583	.168	-.014	.434
점심은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140	.507	-.204	.072	.324
외식의 횟수가 줄었다.	.370	.466	.177	-.132	.402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	.173	.424	.206	.003	.252
친구들을 만날 때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피한다.	.318	.414	.248	-.137	.353
음식값은 각자 돈을 지불한다.	.110	.378	.009	-.360	.285
외국 브랜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한다.	.269	.358	.237	.126	.273
식사는 집에서 먹고 나온다.	.108	.080	.795	-.028	.651
저녁은 가급적 집에서 먹는다.	.181	.015	.744	-.080	.593
집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를 만난다.	.066	.261	.657	.011	.504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시 먹도록 한다.	.196	.082	.493	.346	.408
음식은 외국산보다 국내산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는다.	.128	.250	.382	.163	.251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066	.035	.299	.620	.480
음식의 질보다 양을 생각한다.	.097	.432	.110	.550	.510
점심은 도시락을 이용한다.	.148	-.010	.187	-.344	.176
eigen value	6.299	1.847	1.752	1.196	
common variance	24.2%	7.1%	6.7%	4.6%	

에 「값싼 것 대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값싼 것으로 대체 요인은 아이젠 값이 1.847, 식생활대처행동 전체 분산의 7.1%를 설명해 줌으로써 두 번째로 설명력이 큰 요인이다.

세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식사는 집에서 먹고 나온다」, 「저녁은 가급적 집에서 먹는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를 만난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시 먹도록 한다」, 「음식은 외국산보다 국내산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는다」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식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가정에서 식사 요인은 아이젠 값이 1.752, 식생활대처행동 전체 분산의 6.7%를 설명해 줌으로써 세 번째로 설명력이 큰 요인이다.

네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음식의 질보다 양을 생각한다」, 「점심은 도시락을 이용한다」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절약 강조」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절약 강조 요인은 아이젠 값이 1.196이고, 식생활대처행동 전체 분산의 4.6%를 설명해 줌으로서 설명력이 가장 작은 요인이다.

대처행동에는 절약을 통한 지출감소전략<sup>6, 7, 14, 16)</sup>,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을 갖는 것<sup>12)</sup>, 가족원의 취업<sup>6)</sup>, 동료와 정보교환<sup>7)</sup>, 돈을 빌리거나 저축한 것을 사용<sup>12)</sup>, 재산 처분<sup>7)</sup>, 청구서 지불 안 하기<sup>14)</sup>, 다른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와 같은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대처행동<sup>17)</sup> 등이 있는데 식생활대처행동은 절약을 통한 지출감소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므로

로 지출감소전략도 여러 개의 경험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식생활대처행동

〈표 4〉에는 전반적인 식생활대처행동과 식생활대처행동의 4개의 하위차원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전반적인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 주거상태, 월평균가계소득, 성별 등은  $P<.001$  수준에서 식생활대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 등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은 대학생의 식생활대처행동 분산의 19.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식생활대처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가 가장 크고, 성별은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고, 월평균소득은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주거상태가 가장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택에 사는 대학생이 자취, 하숙,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용돈과 월평균가계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이 많을수록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자취, 하숙 또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자택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보다 용돈이나 생활비

의 많은 부분을 식비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섭취량 감소요인’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는  $P<.01$  수준에서, 한달 용돈의 크기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으나,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거상태,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섭취량 감소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월평균가계소득이 한달 용돈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수들은 ‘섭취량 감소요인’ 분산의 10.9%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월평균가계소득과 한달 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작을수록 섭취량을 줄이는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값싼 것 대체요인’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한달 용돈의 크기에 따라서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으나,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거상태,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섭취량 감소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가 월평균가계소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수들은 ‘값싼 것 대체요인’ 분산의 13.5%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월평균가계소득과 한달 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작을수록 값싼 것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표 4〉 식생활대처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식생활 대처행동	섭취량 감소요인	값싼 것 대체요인	가정에서 식사요인	절약 강조요인
한달 용돈의 크기	-.288***	-.154*	-.201**	-.219***	-.164**
소득 유입액수의 불규칙성	-.023	3.908E - 03	-6.246E - 03	-.125	-.057
어머니의 교육수준	-.018	.038	-3.215E - 03	-.050	.038
주거상태	.153***	.113	.052	.081	.059
월평균 가계소득	-.167***	-.189**	-.162*	.152*	-.104
성별	-.184***	-.026	-.087	-.143*	-.172*
아버지의 교육수준	-.080	-.098	-.113	.122	-.099
연령		.031	.084	-.015	.029
상수	88.557	27.239	29.018	12.905	8.115
R <sup>2</sup>	.199	.109	.135	.177	.089
수정R <sup>2</sup>	.187	.084	.110	.154	.063

1) 회귀계수는  $\beta$ 값을 표시하였음.

\* $P<.05$    \*\* $P<.01$    \*\*\* $P<.001$

'가정에서 식사요인'은 월평균가계소득과 성별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한달 용돈의 크기에 따라서는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으나, 소득유입 액수의 불규칙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거상태,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정에서 식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한달 용돈의 크기가 가장 크고, 다음은 월평균가계소득이고, 성별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가정에서 식사요인' 분산의 17.7%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월평균가계소득, 성별, 한달 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작을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정에서 식사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절약 강조요인'은 성별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한달 용돈의 크기에 따라서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으나,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거상태, 월평균가계소득,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절약 강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성별이 한달 용돈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절약 강조요인' 분산의 8.9%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성별과 한달 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절약을 강조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횡덕순의 연구에서는<sup>6)</sup> 일반적 대처행동은 가정생활주기와 주부의 학력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고, 피동적 적응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의도적 관리행동은 가정생활주기에 의하여, 규범적 절약행동은 주부의 학력, 가장의 직업지위, 주부의 직업지위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다.

도시 가정의 재정적 사전에 대한 대처전략을 다른 최자령과 임정빈의 연구에서도<sup>15)</sup> 지불연기요인은 순자산에 의해서, 절약구매요인은 순자산과 소득에 의하여, 차용행동은 취업여부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으나, 자산이용요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처행동의 분야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위기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각 분야별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직후에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생활분야에서 어떠한 대처행동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대처행동은 어떠한 경험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식생활대처행동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생활영역에서 지출을 감소하는 대처행동을 하였으며, 대처행동의 종류에 따라 실행하는 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하는 식생활대처행동의 평균을 보면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가 3.37로 가장 높았고, '점심을 도시락을 이용한다'가 1.41로 가장 낮았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식품을 구입시 가격을 비교한다', '값싼 음식점을 이용한다', '커피 등 음료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다', '음식은 외국산 보다 국내산으로 만든 음식으로 먹는다', '외식시 가격을 먼저 생각한다', '외식의 횟수가 줄었다', '외국 브랜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한다' 등을 평균이 3점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높은 편에 속한다. 나머지 식생활대처행동들은 평균이 2점대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식생활대처행동은 요인분석결과 섭취량 감소요인, 값싼 것으로 대체요인, 가정에서 식사요인 및 절약 강조요인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4개 요인은 식생활대처행동 분산의 42.6%를 설명해 준다. 요인들의 설명력의 크기를 보면 섭취량 감소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값싼 것으로 대체요인이고, 절약 강조요인이 가장 작았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식생활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식생활대처행동 및 식생활대처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택에 사는 대학생이 자취, 하숙,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대처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월평균가계소득이 작을수록 섭취량을 줄이는 대처행동과 값싼 것으로 대체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정에서 식사하는 대처행동과 절약을 강조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울산광역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분야에서의 대처행동을 조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조사지역과의 비교연구 및 다른 조사대상과의 비교연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1) Pearlin, LL,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2-21, 1978
- 2) 조희선.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3) 현은민·최선남. 시설보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 *한국가정학회지* 37(2):41-54, 1999
- 4) Berman, WH, Turk, DC.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79-189, 1981
- 5) 황덕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1993
- 6) 황덕순.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7) 손상희.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1995
- 8) 이종성. IMF 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문제연구* 21: 55-74, 1998
- 9)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Y. 1984
- 10) Voydanoff, P.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 273-288, 1984
- 11) Voydanoff, P.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1099-1115, 1990
- 12) Voydanoff, P, Donnelly, BW.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1987
- 13) Voydanoff, P, Donnelly, BW, Fine, MA.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545-564, 1988
- 14) Varcoe, KP.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1): 57-69, 1990
- 15) 최자령·임정빈.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1996
- 16) 김혜정.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7) Zinka, K, Buckner, W. Financial problems of consumer in an urban environment. *Proceedings of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 172, 1989